정기명 여수시장 "섬박람회·산단대응·관광 기반 다진다"

민선8기 3주년

2035년 '2천만 관광객 시대' 본격 추진
COP33 유치…국제 기후 리더십 확보
생활 밀착형 민생·복지사업 지속 확대

여수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여수산단 대응, 섬박람회 기반 조성, 여수만 르네상스 등 주요 성과를 강조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회의실에서 언론인,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기명(사진) 여수시장은 "처음 시청 정문을 들어서던 설렘과 책임감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긴 경제 불황의 터널과 저예산 기저 속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을 우선 챙기며 급한 현안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비롯해 웅천국민체육센터,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반려견 놀이시설, 황톳길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했다"며 "선소대교와 엑스포고가교 개통,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소제지구 택지개발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독려와 민생대책반 상시 운영,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15% 특별할인 등을 실시했으며, 수소와 해상풍력 등 투자유치는 7조원을 넘어 8조원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26년 만에 풀어낸 본 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여수산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6세계섬박람회 기반 구축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정 시장은 관광 분야와 국제행사 유치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섬-잇 트레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주요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권과 함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세계 최대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여수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며,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령화 대응을 위한 'AI 스마트팜' 추진,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진남관 복원'과 '여순10·19사건 홍보관 개관 및 특별법 추진'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

체류인구 35만여명…등록인구比 7.7배

담양군이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기록하며 체류 중심의 지역 활력을 입증했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전남도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담양군의 평균 생활인구는 39만8천258명으로, 이 중 체류인구는 35만2천545명,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등록)는 4만5천712명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는 등록 인구의 7.7배에 달하며, 이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1위 기록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로,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지표다.

지난해 12월 기준 타시도 거주자 비중은 83.7%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 66.5%보다 컸으며, 3개월 내 재방문율 역시 45.5%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재방문율 4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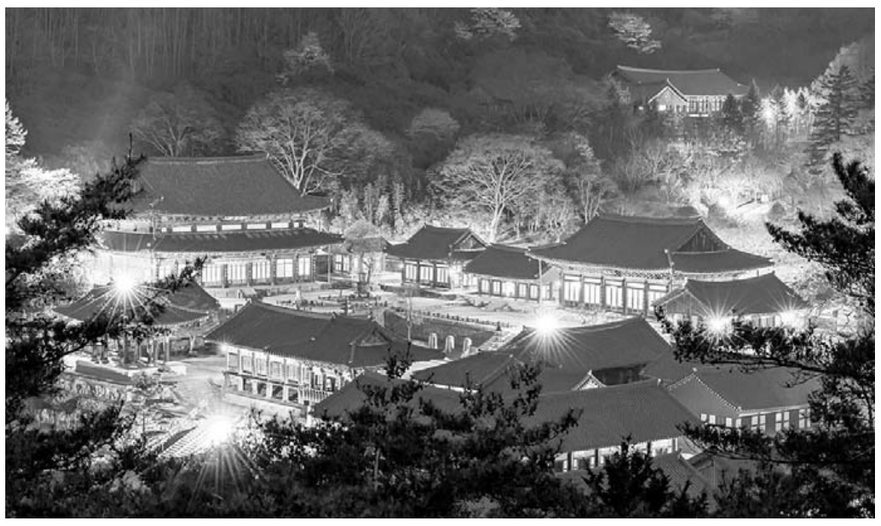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해 세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문 수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담양군은 오는 9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을 비롯해 군민생활체육공원·반다비체육센터·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남부권 광역관광 야간 콘텐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인구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장성군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총 269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4개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했으며, 출생기본수당 등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77개 사업에도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도내 생활인구 1위라는 성과에 걸맞게,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와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구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 화엄사 야간 개방 '화야몽(華夜夢)'

내달 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자정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엄사(사진)는 1일 "오는 8월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찰 경내를 야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개방하는 이번 야간 프로그램 '華夜夢(화야몽)'은 여름밤 고요한 산사에서 명상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화야몽은 오는 19·26일, 8월16·23일 총 4회 열리며, 범정스님과 연우스님이 각각 진행을 맡는다.

주제는 '찰나, 75분의 1초와 1.5℃', 부제는 '화엄! 어디로 그리고 언제'로, 환경 변화와 삶의 속도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회차별로 10명씩 모집하며, 1일부터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주요 일정은 별빛 감상, 묵언 힐링, 차담, 소원빌기, 화엄사 역사 야간 투어 등이다. 화엄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야간 개방을 시작해 사찰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곡성군이 최근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준공

요가·명상·차 체험·향기치유 등

곡성군이 치유산업 거점 시설인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준공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의 새로운 치유산업 거점 공간인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건 전남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립공사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완공된 센터는 요가, 명상, 차 체험, 향기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다.

또한 주민 공동체 활동과 지역 특산품 산업을 연계하는 문화 거점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과 연계해 거점센터 인근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곡성군 치유농업센터'도 함께 조성됐다.

거점센터에서는 이 곳에서 재배한 약초와 허브를 활용해 향기 치유와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주민 주도의 민간 역량을 키워 치유 중심의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거점센터가 그 결실이자 상징적인 성과로서, 주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순천시 특성화고-대학이음 교육과정 수강생이 웹툰 애니메이션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생태·문화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순항

3대 특구 연계 플랫폼 강화…인재 육성

순천시가 생태와 문화로 정주하는 에듀피아(Edupia) 순천을 목표로 교육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7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 ▲지역연계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양성 ▲정주형 특화교육을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순천형 교육발전특구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98억원을 투입, '순천형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 등 24건의 직접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 '글로컬대학 30' 등 5건의 연관 사업에도 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직접 사업 예산은 65억원이다.

특히 교육으로 통하는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지역 인재를 교육발전특구에서 키워 기회발전특구로 머물고, 문화도시특구로 꽃피울 수 있도록 3대 특구 연계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로 대표적 교육과정이 순천시 현안 사업과 연계한 K-디즈니 순천 문화콘텐츠 교육과정이다.

또한 지난 최근 이틀간 개최한 콘텐츠 축제 '원츠(Want)순천'에서는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를 통해 순천교육지원청 및 콘텐츠 기업 케나즈와 협력해 학생들이 순천시 대표 캐릭터 '루미·뚱이'를 그려보는 등 지역 문화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콘텐츠 기반 교육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오가다, 보성키위 음료 출시 MOU 체결

백억커피 매장서 '키위키키' 판매

보성군은 "최근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백억커피'로 알려진 ㈜오가다와 보성산 키위를 활용한 음료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보성산 키위를 원료로 한 신제품 음료 출시, 공동브랜드 '키위키키(Kiwikiki)' 활용 마케팅, 지역 농가와 연계한 유통망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보성군은 보성키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공동브랜드 '키위키키'를 선포하고, 프리미엄 과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해 왔다.

보성군과 백억커피는 7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보성 키위 공동브랜드 '키위키키'를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하고, SNS 캠페인 및 오프라인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임병언 기자

김기홍 광양부시장 이임식

김기홍(사진) 광양부시장이 1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을 가졌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직원, 지역 언론인,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부시장을 격려하고 앞날을 응원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가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20위권 안팎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헌신과 중심에서 역할을 훌륭히 해준 김기홍 부시장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부드러운 성품과 리더십으로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부시장은 "광양에서의 1년6개월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국비 5천억 원 확보, 전남도 내 주요 지표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이뤄냈다"며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